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안지영¹⁾

1. 머리말

2. 한국전쟁관련 내용 분석

- 1) 1987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
- 2) 1993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
- 3) 1996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
- 4)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
- 5)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역사』 (선수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3.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은 지난 20세기 말부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 역사교과서의 경우 신중국 성립이후 계속 유지해오던 구(舊) 소련식 '교학대강'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식 '과정표준'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실험교과서가 제작되어, 중학교용은 2001년부터, 고등학교용은 2004년부터 전국 각지의 실험구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었다. 기존의 '역사과학대강'에 따른 교과서와 새로 제정된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실험교과서가 병행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학교의 경우 2007년 9월 신학기부터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가 역사과학대강 교과서를 대체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직 교학대강 교과서와 과정표준 실험교과서가 병행사용 되고 있지만, 실험이 끝나는 대로 2009년 9월부터는 역사과정표준 실험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²⁾

중국의 '역사과정표준'에 의하면 "과정목표를 실현한다는 전제하에, 교과서 편집자들은 <표준>이 구성한 내용체계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고, 내용표준의 지식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서로 다른 體例의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다."³⁾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과서 편집자가 탄력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내용을 중국 역사교과서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2) 김유리,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역사교육』 제105집, 2008.

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制訂,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현행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과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바뀌면서 편찬체제에 따른 분량 축소에 따라 한국사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점이다. 특히, 한국 전근대사 관련 내용이 거의 사라졌고 동시에 근현대사 관련 내용도 크게 축소되었다. 청일전쟁 관련 부분도 크게 감소했고 『세계근대현대사』에서 다루었던 의병전쟁, 3·1운동 등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⁴⁾ 중국 교과과정 체제변화에 따라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한국관련 서술 변화추이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사 관련 서술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교과과정 체제 변화에 따라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서술의 점진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과서가 왜 한국의 근현대사 중 한국전쟁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과 한·중 간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힐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전쟁관련 내용 분석

현재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역사과정표준'(2003)에 의해 중국전역에서 실험 중인 『역사』 실험교과서는 모두 4종 판본이 있다. 인민교육출판사, 악록서사, 인민출판사, 대상출판사의 실험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⁵⁾ 그 중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역사실험교과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과정대강에 의해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에 의해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 역사교과서의 한국전쟁관련 서술을 분석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다른 모든 역사교과서가 그러하듯이 중국의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의 언급은 1956년판 『초급중학과본 중국역사』 제 4권 제 21장 '인민민주정권의 공고', 제 1절 '항미원조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등장한다.⁶⁾ 신중국이 성립된 지 채 1년도 안되어 발생한 한국전쟁은 항미원조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 대내적으로 중국 내의 반혁명세력을 일소할 수 있었고, 민중들의 애국심과 충성심, 희생정신을 고양시켜 정권의 안정과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⁷⁾

4) 김지훈, 「한중 역사 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제17호, 2007. 4.

5) 김유리,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역사』 실험교과서의 서술내용 분석」, 『역사교육』 제105집, 2008.

6) 신주백, 「동아시아 근현대 질서변동과 중국의 한국근현대사 역사인식(1949-2006)」, 『백산학보』 제75호, 2006. 8. 85쪽.

7) 김옥준,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 2006. 3. 140쪽.

1) 1987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

전일제십년제학교과본(全日制十年制學校課本)에 의해 1983년 출판된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에는 한국전쟁관련 서술이 없다. 1987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에는 '제 9장 인민민주역량의 강화와 미국의 패권주의'라는 장이 추가되면서 한국전쟁관련 내용이 신설되었다.

추가된 제9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9장 인민민주역량의 강화와 미국의 패권주의
 - 인민민주역량의 강화
 - 미국패권지위의 확립과 미국의 냉전정책
 - 미국의 아시아 침략

한국전쟁은 제 3절 '미국의 아시아 침략'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폭발하였다. 트루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해군, 공군을 파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향해 침공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무력으로 중국인민들이 해방시키고자 하는 자국의 중요 영토인 대만의 해방을 방해하기 위하여 제7함대로써 대만해협을 침입하였다. 또한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제안을 통과시키고, 15개 국가의 군대를 규합하여 미국 위주의 "연합국군"을 조직하여 조선 북부를 침공하였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인천에 상륙한 후 미친 듯이 북부를 침략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이 중국 동북 변경에까지 이르렀다. 중국 인민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며, 국가(중국)를 보호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압록강을 거쳐 조선인민군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하고 작전에 임하였다.

조선과 중국의 양국 인민은 '미국침략군'을 곧 북위 38도선 부근까지 격퇴시켰다. 1953년 여름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조선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⁸⁾

1987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에 표현된 한국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시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까지 자유주의 진영에 포함시킬 경우, 중국은 자국의 국경이 자유진영과 바로 접하게 되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다.⁹⁾ 이런 역사의식은 '조선 북부를 침공', '미국은 인천을 상륙한 후 미친 듯이 북부를 침략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이 중국 동북 변경에까지 이르렀다' 등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즉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대한 항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작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을 배제한 자국사적 입

8) 高級中學課本, 『世界歷史』第3冊, 人民教育出版社, 1989, 285쪽.

9)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에서 출판된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助戰史』, 2쪽에는 □□조선민족의 분열을 조성하고 조선독립통일의 실현을 방해하여, 한반도를 미의 식민지로 또 나아가서는 침략확대를 진행시키는 전진 기지로 삼고자 하는 헛된 기도를 추구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장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같은 교과서 『세계역사』에서 한국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확장은 다시 한번 좌절을 겪었고, 특히 조선과 베트남 침략전쟁 실패이후, 국력은 전쟁초기에 비해 대폭 약해졌다. 미국은 미국의 전략중심인 유럽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부분병력을 철수시켜 유럽으로 보냈다.

중국은 냉전의 산물로 발발한 두 전쟁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침략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미국에게 있어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해결을 상호 포기한 비전 전쟁이었다면, 베트남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게 있어서도 한국전쟁은 피해가 컸던 승자 없는 전쟁이었다. 오히려 병력 손실 면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 측의 총 손실은 42만 6천명으로 나타났고, 그 중 연대병력 이상급 지휘관만도 200여명이 희생되었다.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아도 중국 군대의 손실은 미국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1951년 중국의 총예산은 전쟁으로 인해 60%가 증가했고 총 예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전에 쓰인 것만도 32%에 달한다.¹⁰⁾ 당시 장기간의 대일전과 내전으로 경제는 파폐해져 있었고 내부 개혁도 막 진행 중이던 중국에게 한국전쟁은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987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에서는 미·소 냉전체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의 침략행위와 실패만을 강조하고 있다.

2) 1993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

전일제십년제학교과본(全日制十年制學校課本) 『세계역사』(1987년 제2판 수정본)을 기초로 전일제중학 '역사교과대강' (수정본, 1990년 제2판)에 의해 수정 출판된 책이다. 1987년 『세계역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대결구도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내전의 폭발부터 기술한다. 이 관점은 1956년부터 유지되어 온 것이다.¹¹⁾

3) 1996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 하책(필수)

전일제보통고급중학역사교과대강(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을 기준으로

10) 沈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 50년 후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고찰과 회고」, 『신아시아』 제7권 제2호, 2000. 105~106쪽 정리.

11) 신주백, 「동아시아 근현대 질서변동과 중국의 한국근현대사 역사인식(1949~2006)」, 『백산학보』 제75호, 2006. 8. 86쪽.

1996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가 편찬되었다. 한국전쟁관련 부분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장 세계 양극 국면의 형성

제1절 전후 초기의 국제관계

제2절 사회주의 역량의 발전

제3절 미국의 패권정책

제4절 전후초기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민족독립운동

한국전쟁은 제 3절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전 1987년판, 1993년판 『세계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조선과 베트남 침략전쟁’이란 소절로 냉전의 대표적인 두 전쟁을 묶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과 베트남 침략전쟁

미국은 유럽에 냉전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전후로 두 번의 국지적 전쟁을 치렀다. 1950-1953년 조선을 침략한 전쟁과 60년대 초에서 1973년 베트남을 침략한 전쟁이다.

1950년 6월,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국은 UN안보이사회를 조정하여 결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라 비난하였다. 전쟁 발발 삼일 째, 미국은 즉시 한국을 원조할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보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또 UN안보이사회를 조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고, 미군을 위주로 하는 “연합국군”을 조직하여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전쟁의 불길은 곧바로 중조변경(中朝邊境)까지 번져왔다. 조선군인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아래, 1953년 미국은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²⁾

여기서는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대만해협 침입’은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자라고 비난하였다’라고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사실에 대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 및 1992년 한국과의 정식수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비록 교과서 서술에 있어 이전보다 공격적인 단어를 자제하긴 하였지만 미국의 한국전쟁 원조로 조선내전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위협으로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역사적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이전에 이미 북한의 남침계획과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지원에 합의하였고, 중국지도부는 7월초부터 참전을 대비한 준비에 나섰다. 마오쩌둥은 만약의 경우(즉, 출병)를 대비해서 중국남부에 머무르던 제 4야전군을 압록강변으로 북상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¹³⁾ 참전에 대비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50년 8월 중순까지 제 4야전군 내 13병단의 4개군(軍) 25만 5

12) 高級中學課本, 『世界近代現代史』下冊(必修), 人民教育出版社, 1996, 79-80쪽.

13)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1)」, 『전략연구』 통권 제15호, 1999, 2, 227쪽.

천명이 압록강 일대로 이동한 상태였다.¹⁴⁾ 따라서 한국전쟁은 남북간의 내전에서 미국의 참군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된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과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중국의 동조 하에 이루어진 국제전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또한 중국지원군의 개입이 이 전쟁을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의 대결이라는 국제전쟁의 구도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양대 진영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결국 중국지원군 참전은 세계냉전구조를 공고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¹⁵⁾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침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부 누락시키고 있다.

4)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중국근대현대사』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중국근대현대사』는 ‘역사교과대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이다. 2000년대 초의 ‘역사교과대강’에 반영된 중국 교육부의 입장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강조되었다.¹⁶⁾

제5장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적 실현

제1절 신중국의 성립과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

〈항미원조(抗美援助) 보가위국(保家爲國)〉

신중국은 창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부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1950년 여름에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 미국은 신속히 무력으로 조선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미군을 위주로 하는 ‘연합국군’을 조직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을 곧바로 중조변경(中朝邊境)까지 끌고 왔다. 동시에 미국의 제7함대도 대만해협에 들어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조선의 국세가 위급해져서 중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며, 집안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에 팡더하이 [彭德懷] 를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에 나가 조선군민들과 함께 미국 침략자를 반격하였으며, 미군을 ‘38선’ 부근까지 몰아냈다. 그 후 중국과 조선의 군민(軍民)과 미국 침략군은 반복적 전투를 진행하였다. 중국과 조선군민의 큰 타격을 받은 미국은 1953년 여름에 □□조선정전협정□□을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항미원조전쟁은 미군의 실패로 승리적으로 종결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기를 나누어 개선하였다. [...]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전쟁정책을 크게 타격하였으며,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였고, 중국의 국제적 성망을 전례(前例) 없이 제고시켰다. 동시에 이 승리는 중국의 경제건설과 사회개혁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평화환경을 마련해 주었다.¹⁷⁾

14) 이종석, 앞의 논문, 228쪽.

15)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II)」, 『전략연구』 통권 제16호, 1999, 7, 252쪽.

16) 장세운, 「최근 중국 역사교과서의 변동 추세와 한국근현대사 서술」,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06.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중국근대현대사』에서는 ‘북한이 중국 정부에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서술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웃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하였다는 서술은 임진왜란 때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명나라에서 원군을 파견하여 조선을 도왔고, 갑오농민전쟁 시기에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에서 원군을 파견하였다고 하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실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순망치한의 관계 속에서 출병하였던 면이 더 강하였고, 청일전쟁도 결국은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세력다툼에 원인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도 조선을 돕는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권에 완전히 들어갈 것을 우려한 중국이 안보상의 위협을 막기 위해 참전한 측면이 더 강하다.¹⁸⁾

5)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역사』 (선수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이 교과서는 중국 ‘역사과정표준’판 교과서이다. ‘냉전’과 ‘전쟁’을 분리된 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전쟁도 독립된 한 절로 이전 교학대강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세계 대전
2. 베르사이유-위싱턴체제하의 세계
3. 제2차 세계대전
4. 알타체제하의 냉전과 평화
5. 전화가 계속되는 국지전쟁
6. 평화와 발전

한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단원 전화가 계속되는 국지전쟁

제1과 조선전쟁

〈조선전쟁의 폭발〉

20세기 50년대 초,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자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최대 장애로 간주하였다. 미국이 볼 때 조선반도상의 충돌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갖는 이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이 전 세계적 전쟁의 제1단계를 발동’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조선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진행하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유지·확대하며, 또한 이 기회를 틈타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의 패권정책을 진일보하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더욱 서둘렀다.

17) 『中國近代現代史』(必修)下冊, 2003. 12. 제1판·2005. 10. 3쇄, 88~90쪽.

18) 김지훈·정영순,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3輯, 2004.

1950년 6월 25일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신속하게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남방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한국 군대는 착착 패퇴하였다. 이는 미국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소련 대표가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문제를 토론하는 때에 출석을 거절한 것을 이용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을 ‘침략자’로 질책하는 결의를 통화하도록 조종하였으며, 아울러 한국의 무장원조를 선포하였고 갑자기 제7함대를 출동시켜 대만해협에 진주케 하고 중국내정을 간섭하였다. 7월에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연합국군’ 조직을 결정하여 조선전쟁을 간섭하였고, 미국의 맥아더를 ‘연합국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 9월 28일 미군은 한성을 점령하였고, 10월에는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였다. 미군은 매우 빨리 전화의 불길을 중조변경의 압록강변까지 번지게 하였고, 조선 동북지구를 폭격하였으며 중국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였다.

〈항미원조(抗美援助), 보가위국(保家爲國)〉

1950년 10월 김일성은 마오쩌둥 주석에게 긴급 구원 전보를 보내서 중국의 출병원조를 청구하였다.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 조선이 외래 침략과 간섭에 저항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치국과 중앙의 주요 영도인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중국인 민지원군의 조직을 결정하였다. 10월 19일 사령관 평덕화이(彭德懷)의 지휘하에 지원군은 3路로 나누어 압록강을 건너서 항미원조(抗美援助)작전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의 영향〉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서방 양대 진영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1차 대규모의 국지전쟁이었다. 이것은 주요 참전국 및 동아시아의 지역의 국제정세에 모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조선반도의 분열국면을 더욱 촉진했다. 조선전쟁 중 신중국은 세계에서 최강대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3년의 전쟁을 진행하여 미군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했다. 미국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국가들을 압살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실패하였다. 신중국은 제국주의 세력이 전화(戰火)를 집문 앞까지 끌어들이는 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보가위국’의 항미원조 전쟁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안전을 굳게 지켰고, 조선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의 국제지위를 매우 크게 제고하였다. 동시에 이 전쟁 중과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장기봉쇄를 실행하여 양국관계가 장기간 적대상태에 처하게 하였다.¹⁹⁾

중국 ‘역사과정표준’판인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역사』는 서술 분량, 내용적인 면에서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새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동·서진영의 대립과 냉전 등 국제정세, 특히 미국의 패권정책 추구를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참전 배경으로 서술하여 다소 구체적이면서도 과거 교과서와 다른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역사과정표준’ 역시 교학사상교육 방면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교육’, ‘전통미덕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중시한다. 그것은 20세기 말 지식경제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국제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생긴 ‘민족

19) 보통고중과정 표준실험교과서 『역사』(選修3)(20世紀的戰爭與和平), 2005. 인민교육출판사, 108~111쪽.

20)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역사교과서의 민족국가영토 문제』, 2006. 142쪽.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인 버팀목이었다. '역사과정표준'은 과정정절을 규명하는 항목에서 '유물주의 사관을 통한 문제분석, 문제해결, 그리고 애국주의 정감의 증강, 중화민족 전통의 계승발전을 통한 민족자존심과 자신감의 수립'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21)

즉, 이민족 국가였던 청나라, 세계열강에 의한 영토조차(租借), 열강의 식민지 등 굴욕의 1세기를 보낸 중국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처음으로 대국으로서의 중국이라는 민족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케 해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오랫동안 중화민족의 심리에 숨어있던 굴욕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중국인민은 진정으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외칠 수 있었다.22) 중국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신중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해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자국사적 역사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과정 변화에 따른 한국전쟁서술의 내용변화 추이와 한국전쟁서술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한국 역사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전쟁을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통해 □□보가위국(保家爲國)□□을 달성한 전쟁으로 서술하고 있듯이, 중국은 한국전쟁을 대내적으로는 신생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게하고, 대외적으로는 초기 국가 건설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최대의 성과를 거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게 있어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세였던 중국이 3여 년간의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휴전협정에 참여하는 등, 중국으로 하여금 민족적 비하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 냉전시대의 하나의 국지적 혹은 내전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중국에게 있어서는 냉전의 두 축의 하나인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으로 인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입장과 그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책임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중화사상에 뿌리를 둔 주변국에 대한 보호자 혹은 구원자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중국의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빛을 바래지 않은 이상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금까지 중국 역사 교과서 서술과 그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교과표준에서 뿐 아니라 중국 군사과학원 등의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1987년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역사』에서 “압록강을 거쳐 조선인민군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하고 작전에 임하였다”에서 나타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혈맹관계는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세계근대현대사』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에 나가 조선군민들과 함께 미국침략자를 반격하였으며”의 표현과 2005년 인민교육출판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지원군병은 3로로 나누어 압록강을 건너서 항미원조(抗美援朝)작전을 개시하였다”로 서술되어, 이데올로기적 감정이 배제된 서술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심화와 한중 국교 수립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되며, 적어도 북한을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 간 문화적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문화의 충돌과 함께 역사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역사 인식의 문제는 국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결국 역사 서술 역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 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역사 교과서 서술에 대한 지침인 '역사과정표준'의 변화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 있어서의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자국사 중심의 역사서술 방식과 해석으로 지금 한중간은 역사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교육이 국가 정책에 규정되고,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준 중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도 교과서가 다음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역사의식 형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한중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시정 요구보다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들이 함께 상호적인 관점에서 국제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2005년에 한·중·일이 함께 만든 역사교과서인 『미래를 여는 역사』와 같은 실천적 활동은 한·중 양국간의 역사 갈등을 넘어서는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1) 권소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실용주의 역사학으로」, 『중국의 역사교육 그 실상과 의도』, 2006. 3. 36쪽.

22) 沈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50년 후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고찰과 회고」, 『신아시아』 제7권 제2호, 2000. 104쪽.